

[박스]

전통·현대 상존하는 인도의 역사·문화

어린이 책꽂이



▲하루나, 길을 수 있어=주인공 하루나는 선 천성 사지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소녀다. 일본 사 이야마 초등학교의 교사인 이나가키 요코가 하루나가 속해 있는 1학년 3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겪었던 감동적인 교육 현장을 생생하게 전한다.

(루멘스·9천원)



▲여우굴=호주작가로는 처음으로 캐네기상을 받은 아이반 사우스울의 1967년 작으로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장편동화다. 외삼촌 집에 놀러 간 주인공 켄은 사촌 휴와 함께 닭을 팔고 가는 여우를 쫓다 그만 '여우굴'에 빠진다--

(책과콩나무·9천800원)



▲앵무새의 선물=동물들 키우면서 믿음과 책임감을 배우게 되는 아이의 이야기를 그린 창작동화. 식당을 운영하느라 바쁜 아빠, 엄마를 둔 하영이는 부모님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아이다. 동화작가 이은 씨가 썼다.

(계림북스·8천500원)



▲아버지의 쌀알=어린 시절을 태국에서 보낸 중국계 미국인 작가 민풍 호가 1970년대 태국의 모습을 그린 소설. 태국 북부의 농촌마을 메콩에서 나고 자란 열일곱 소녀 진다는 어느 날 마을을 찾은 대학생들과 만나면서 주어진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삶을 꿈꾸게 된다.

(달리·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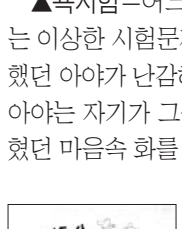
▲말에게 용기를 주는 27가지 이야기=전 세계 옛이야기 가운데 공감한 소녀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 그림 형제의 '라퐁젤'처럼 널리 알려진 작품들부터 아프리카나 영국,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담, 그리고 작가가 직접 창작한 네 편의 이야기도 함께 묶었다.

(한겨레아이들·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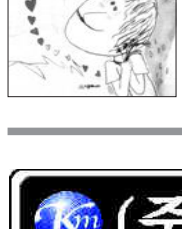
▲악어 우리나라 버스놀이=달것으로 한바탕 놀고 싶은 아이들의 마음을 잘 포착한 그림책. 악어 우리나라는 어딘가에 정말 있을 것만 같은 상상속의 세계 악어마을, 그리고 바람불어언덕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은 신기한 세상을 꿈꾼다. 상상하고 뜻뜻한 그림들이 책에 빠져들게 한다.

(한림출판사·1만원)



▲육시현=어느 날 선생님이 '육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적어보라'는 이상한 시험문제를 낸다. 육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놀림당 당했던 아이가 난감해 하자, 그러면 틀어본 육이라고 적어보라고 한다. 아이는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육을 하나하나 적어나보다 비로소 목했던 마음속 화를 훌훌 털어낸다.

(보리·8천500원)



▲열두 살, 나의 첫사랑=첫 사랑에 빠진 소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낱아 보여준다. '회고록'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한 소녀를 만난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일들을 기록하는 지문. 소년은 자기가 느낀 변한 감정을 심하게 털어놓지만 독자들은 웃을 짓게 한다.

(시공주니어·8천원)

인도 이야기 마이클 우드 지음



M130(유전자 번호의 명칭-인류의 기원과 이동을 분석하는데 사용됨). 1만 년 전의 화석에만 존재하던 이 유전자가 21세기의 오늘날까지 인도인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유전자뿐만 아니라. IT를 비롯한 지식산업 분야에서 최첨단의 대륙으로 뜨고 있는 이 현대적인 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인류 역사의 멀고 먼 과거부터 지켜온 관습들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다.

인도대륙에만 15억 인구가 있으며 공식 언어만 22개, 소수 언어와 방언은 400개가 넘는다. 또 5천 개나 되는 카스트, 3천300만 명의 신들과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많은 종파가 넘쳐난다.

문명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라 인도. 그렇기에 더욱이 무엇이 오늘날의 인도를 만들어낸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컸던 게 사실이었다.

역사학자이자 영국 BBC의 간판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우드가 인도대륙에 인류가 등장한 이래의 역사에서 문화까지, 인도 특색에서 21세기 오늘날까지, 인도의 모든 것을 포괄한 엄청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인도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마이클 우드는 이 작업을 위해 40여 년간 30차례 이상 인도를 방문하고, 본격적인 집필 과정에선 장장 18개월간 인도에 머물며 인도의 과거와 현재를 추적했다.

저자는 대영 박물관의 큐레이터, 인도 발굴 현장의 저명한 고고학자, 현재의 도서관 사서 등은 물론이고 달라이 라마부터 촌락의 장로, 거리의 약재상까지 인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인도의 과거와 현재를 풍성하게 되살려내고 있다.

철저한 고증과 현장답사를 통해 저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밟았던 원정로, 그리스와 아랍의 무역상들이 드나들던 '그랜드트림크로드', 1960대의 '히피 트레일' 등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친다. 또 은밀한 경전으로만 알려져 있던 '리크메다'(인도 최초의 역사문헌), '바가바드 기타'(인도 역사속에 전철은 지혜의 발자국으로 경전), '카마수트라'(에로틱한 사랑에 관한 내용을 담은 힌두 문헌) 등에 접목해 있던 상상력의 도시들을 눈앞에 펼쳐보인다.



인도의 '아트 콤비 얼라 축제'. 이 축제에선 7천여만명의 순례자들이 영혼의 정화를 위해 갠지스강에 들어간다.

책은 이처럼 위대한 사상의 근원이자 놀라운 다양성과 무한한 생명력을 지닌 인도 문명의 1만 년 역사를 탐사하고, 인도문화의 구성구성에 깊숙히 관여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저자 마이클 우드는 "대다수 사람이 '인디아-브릭스 펀드' 정도의 이름으로만 알고 있지만, 인도

의 지력은 1만 년 동안 이어온 정체성과, 놀라운 다양성 속에 깃든 생명력에 있다"고 말한다.

화려한 영상 자료(200여 컷의 사진)에 풍부한 지식과 애정을 가진 저자의 글이 더해져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움과 다양함 속에 생명력을 품은 거대한 인도 문명의 힘을 느끼게 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8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마약 전과자 출신 요리사 성공담

나는 희망이다 제프 헨더슨 지음



"정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성공 스토리다!"

지난 2007년 3월 1일 '오프라 윈프리 쇼'에 초대된 한 남자의 실례에세이를 두고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날 미국 전역을 감동으로 물들이며 큰 화제가 되었던 그 사람은 바로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최초의 흑인 총주방장 제프 헨더슨.

그런데 그가 화제가 되었던 것은 비단 흑인 요리사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의 성공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다른 아닌 마약 밀거래 죄로 19년 7개월 형을 선고받고 10년간 교도소에서 장기복역한 마약밀거래 전과자 출신의 요리사였던 것이다.

제프 헨더슨이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거침없이 써내려간 회고록 '나는 희망이다'에는 거리와 교도소에서의 삶과 세계 최고급 호텔 거대 레스토랑 주방에서 펼쳐지는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비롯, 그가 미국 최고의 젊은 요리사로 주목받기까지 극복해 온 놀라운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세상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없다고 확신하는 그는 "지금 자신이 받은 축복을 함께 사회에 되갚기 위해 나누고 있다"고 쓰고 있다.

(노블마인·1만2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간으로서의 조선 왕들, 그대면

왕을 위한 변명 신명호 지음



조선의 왕실과 왕에 대해 연구해온 신명호 교수가 '인간으로서의 왕'을 심리적으로 재구성해 새로운 유형의 역사 연구서 '왕을 위한 변명'을 냈다.

저자는 통치자로서 엄정한 규범을 요구받았던 조선 왕들의 내면을 저자가 3인칭 전지적 시점의 소설을 쓰듯 그리고 있다.

주인공으로 선택된 10명의 왕은 세종 같은 '훌륭한 임금'부터 연산군, 광해군 등 '최악의 군주'까지 두루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왕들이다.

책 곳곳엔 왕이기에 앞서 인간이기에 품을 수밖에 없었던 '저존'의 고통과 아픔이 스며 있다.

여러인의 '폐비 사건'에 사달려 병의 현상까지 보면 연산군, 인목대비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사달린 광해군의 정신병력이 그들을 '폭군'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는 연민이 느껴질 정도다. 또 소현세자를 죽임으로 내몰고도 '친청파로 변한 아이들' 때문에 당당한 결과라고 자위했던 인조 등의 이변도 생생하게 펼쳐진다. 저자는 "왕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존재했던 조선왕들의 내면을 파헤치고 싶었다"며 "조선 왕들의 인간적인 갈등과 한계를 알지 못하고선 역사의 진상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사·1만4천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바람 피는데는 다 까닭이 있어

불륜의 심리학 게르티 젤러 지음



이유없는 무덤이 없듯, 바람을 피는데도 다 까닭이 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이며 파르너스 관계치료 전문가인 게르티 젤러의 '불륜의 심리학'은 그가 30년 동안 불륜을 연구한 결과물을 담은 책이다.

저자는 파르너스 관계가 지속되면 관능적 매력은 줄어드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추정될 만큼 보편적인 현상임을 분석한다.

남성의 경우 관계를 맺은 지 6~9년차 되면 고정된 파트너에게 느끼는 성적 매력도가 최저점에 도달한다.

여성의 욕망은 관계를 맺은 지 10년쯤 지나면 내리막길을 걷는다. 이 시기가 되면 은밀한 사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한다. 새로운 성적 자극에 대한 욕구, 새로운 관능적 체험에 대한 욕망이 짙어진다.

외도나 불륜은 동물도 마찬가지다. 4천여종이나 되는 포유류 중 암수 한 쌍만 짝을 짓는 종은 100여종에 불과하다.

현재 알려져 있는 853개의 문화권 가운데 일부일처제가 명문 화해 있는 것은 16%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인류에게도 보편적인 것이었다. 책은 불륜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예방하라 ▲자신을 위로해줄 것을 찾아라 ▲과거를 정리하라 ▲유머를 활용하라 등 10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스디출판사·1만2천원)

/오광기기자 kroh@kwangju.co.kr

Table with multiple columns: (주)국민법률정세, 광주, 전남지역 경매, 0621364-8700 H.P 010-4608-3700. Includes detailed real estate listings for various districts like Gwangju, Jeonnam, and Jeonbuk.